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카보베르데를 떠나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중국을 거쳐 태어난 땅 한국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며 내 안의 성령께서 심히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삶의 예배보다 더 중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으로 변하면서도 바리새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부부 역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라 불러주시며 의인이라 칭하신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안식월답게 보내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많은 동역자를 보내 주시어 공궤케 하시며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카보베르데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능력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도 카보베르데와 한국에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11월의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기도제목

*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 한국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 리보네구아 교회를 통해 전도와 제자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 시 의회에서 초등학교 인가를 받아 다음 학년에는 리보네구아 지역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도록

* 사랑 마을과 리보네구아 지역 아이들의 후원자를 연결 시켜 줄 수 있도록

* 3.1절 100주년 기념 오페라 공연 작곡자이신 박 재훈 목사님의 방한(訪韓)에 조 선교사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 조 남홍, 연섭 선교사입니다.

파송교회 ; 캐나다 큰빛 교회, TOV 교회

소속단체 : GMP America, 한국 불어권 선교회

한국에 있는 동안 사용하는 전화번호 : 조 남홍 010-4793 0213, 김 연섭 010-4793 0649